

청양군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청양발전포럼

## 청양군 농업·농촌 발전방안

일시: 2006년 2월 28일 화요일, 14:00

장소: 청양군청 대회의실

주관: 청양군·충남발전연구원

## ◆ 진행 순서 ◆

### 개회식(14:00~14:20)

- 국민의례
- 환영사 김 시 환 청양군수

### 주제발표(14:20~15:20)

- 좌            장
- 제1주제 발표   농촌정책의 동향과 청양군의 대응전략  
                         송미령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2주제 발표   청양군 농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조상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 제3주제 발표   농촌관광 추진동향과 성공전략  
                         황길식 명소마케팅 대표

### 휴식(15:20~15:30)

### 종합토론(15:30~16:30)

- 토론  곽경호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 토론  김기수  청양고추랜드 대표이사
- 토론  이두희  충남농업기술원 연구사

### 폐회(16:30)

# 목 차

## □ 제1주제 : 농촌정책의 동향과 청양군의 대응전략

- I. 왜 농촌정책인가 3
- II. 농촌개발의 의미와 새로운 도전 5
- III. 농촌개발정책의 동향 9
- IV. 향후의 농촌정책 여건 전망 18
- V. 청양군 농촌 발전 전략 24
- VI. 결론을 대신하여 30

## □ 제2주제 : 청양군 농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 I. 농산업관련 인식의 변화 36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37
- III. 청양군 농산업의 발전방향 및 컨셉 50
- IV. 지역농산업의 특성화 방향 제시 51

## □ 제3주제 : 농촌관광 마을가꾸기의 성공열쇠, ‘사람 가꾸기’

- I. 농촌관광의 등장 55
- II. 농촌관광의 개념과 추진동향 57
- III. 농촌관광 마을가꾸기를 위한 사람가꾸기 전략 63
- IV. 농촌관광은 human service 70

## 제1주제

# 농촌정책의 동향과 청양군의 대응전략

---

송 미 령 · 성 주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정책의 동향과 청양군의 대응전략

## 1. 왜 농촌정책인가

- 국가정책 차원에서 농촌의 개발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과제임. 그러나 농촌개발의 의미나 의의는 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음
- 우선 농업, 농촌, 농민을 강조하던 시대의 농촌개발은 농업개발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음. 또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이 강조되면서 농촌개발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SOC 정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농촌개발에 대한 기존 개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농촌지역의 자원과 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나아가 전 국민에게 열린 통합적 농촌개발, 지역경영 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농촌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민 등까지 포괄하는 복합생활공간으로서 농어촌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공간정책이자 지역정책으로서 농촌정책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에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됨. 특히 지역 활성화를 놓고 지방 간 무한경쟁에 돌입한 현 상황에서 지역의 장래에 대한 긴 안목의 전략이 없이는 농촌이 침체 일로를 벗어나기는 어려움.
-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바는 이 시대 우리 농촌개발의 비전은 무엇이며 그에 걸맞은 정책은 어떻게 체계화 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였음. 우선 제2장에서는 농촌개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개성과 자원에 기초한 농촌개발의 비전을 제시함.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 현황을 간략히 평가한 후, 제4장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여건을 살펴봄. 그리고 제5장에서는 청양군 농촌발전의 여건을 진단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후 제6장에서 결론을 제시함

## II. 농촌개발의 의미와 새로운 도전

## 1. 농촌의 범위와 위상

- 전통적으로 농촌은 자연,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 내지 지역사회로 이해되어 왔음. 즉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농촌은 낮으며, 도시가 주로 2·3차 산업 활동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농촌은 1차 산업을 경제기반으로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전통적 개념에서는 ‘농촌지역은 곧 농업지역’으로 인식되었으며, 농촌의 기능은 식량생산과 원료공급처, 도시 공산품의 소비시장으로 규정되고, 농업의 비중이 급락한 산업사회에서 농촌이란 낙후한 공간 혹은 나머지 공간으로까지 인식되었음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부(市部) = 도시, 군부(郡部) = 농촌 또는 동부(洞部) = 도시, 읍·면부(邑·面部) = 농촌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는 단위지역 내의 인구수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것임
- 다른 한편 제도적인 차원에서 농촌지역은 국토공간에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지역(비도시지역)’의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함
- 그러나 오늘날 농촌은 단순한 농업생산공간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활공간으로서 그리고 농업 이외의 다각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공간으로서, 환경 및 경관과 휴식 및 레크레이션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또한 농촌은 이와 같은 고유한 기능을 지님과 동시에, 도시의 ‘나머지’나 주변이 아니라 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공생을 추구함

## 2. 농촌 그리고 농촌개발의 비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은 전 국민에게 열려 있는 생활공

간이자, 다각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공간이며, 아름다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여가와 휴식이 이루어지는 자연공간의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곳임. 그리고 이러한 중첩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영역과 방향, 수단이 설정돼야 함

## 1)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

-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료, 교육, 복지, 문화 등)와 사회간접자본(주택, 도로, 상하수도, 교통, 정보, 통신)이 최소한으로는 공급되어야 함
- 특히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의 관점에서 전 국민이 국토 어디에 살든 최소한 누리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임
- 이러한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는 농촌개발정책이 필요함.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집행과 획기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됨

## 2) 산업공간으로서의 농촌

- 농업은 농촌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임. GN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이미 5%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농촌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임
- 따라서 농업개발은 여전히 중요함. 다만, 농업개발의 목적을 지금까지와 같이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두는 것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통합적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유지가 필요하고, 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값싼 식량의 제공에서 다면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농업개발의 방향도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바뀌어야 함



- 한편 농업이 농촌지역에 중요한 산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농촌지역의 유일한 산업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됨. 이미 여러 농촌지역에서 비농업 경제활동의 종사자가 농업종사자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이 다각화되어야 함
- 경제활동의 다각화는 비단 농민의 경제활동 다각화뿐 아니라 비농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관련해 농산물의 가공 및 마케팅, 연관산업 및 새로운 기업 창출, 향토문화산업과 농촌관광의 활성화 등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존 농업정책의 방향 전환 및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의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 정책수단의 도입이 필요함

### 3) 자연공간으로서의 농촌

-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변화하면서 자연공간으로서 농촌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즉, 농촌이 단순한 생산공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전 국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 그러나 그간 우리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은 이른바 개발의 미명 아래 급속도로 파괴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 환경 및 경관을 회복하고 보전하는 것은 매우 긴급한 과제임
- 회복하고 보전해야 할 환경 및 경관의 범위에는 비단 자연환경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보호, 유형·무형의 전통적 문화유산(전통 건축물, 문학 및 예술, 축제, 식문화 등), 그 지역의 개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이 결국 농촌의 경제활동 다각화에도 밀접한 관련을 갖어야 함

#### 4)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농촌개발

- 현재 우리 농촌의 경우 그 역량이 매우 미약한 게 사실임. 따라서 농촌개발정책을 이른바 상향식(bottom-up)으로 전면 개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개발정책이 결과뿐 아니라 과정으로서도 그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농촌개발은 기본적으로 상향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과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됨
-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교육 및 훈련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지방과 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 Ⅲ. 농촌개발정책의 동향

#### 1. 기존의 농촌개발사업

- 정책은 사업을 통해 구체화됨. 기존의 우리나라 농촌개발사업은 중앙정부 10개 부처가 약 40여 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음. 대강의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개개 사업마다 그 근거 법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음
- 둘째, 개별 사업이 적용되는 공간 범위는 마을, 마을권, 읍·면, 시·군 일부지역(대체로 3~5개 읍·면) 등으로 다양함
- 셋째, 사업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택 및 도로정비나 공공시설 공급 등과 같이 농촌의 부족한 SOC를 보충하는 하드웨어 정비가 주를 이루었음. 굳이 그 내용을 구분하자면, 일반 농촌의 정주기반 확충, 낙후 농촌의 정주기반 확충, 도농 교류 등 소득기반 조성 등으로 큰 구분이 가능함
- 넷째, 사업 추진 절차와 방식에서는 법률 등으로 사업대상지가 먼저 지정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방식과 시·군 등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공모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양분할 수 있음
- 또 다른 한편으로, 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준이 기본계획인가 아니면 물량계획인가로도 구분이 가능함.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각도로 농촌개발사업을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1> 농촌 지역개발사업 현황

시·군	도시 기본계획/관리계획					
	농업농촌발전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집경지역종합계획	농지이용계획	
읍·면				정주권개발계획		
				오지·도서종합개발계획		
				소도읍육성계획		
마을	문화마을조성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전통테마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마을가꾸기			
			정보화시범마을			
단·위·시·선	농어촌도로경비	아름다운마을숲 조성사업	청소년수련마을 지원사업		농촌용수개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소하천경비				경지정리	가축계열화사업/한우사업
	상수도/하수도 사업				배수개선	농산물표준규격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수리시설개보수	농산물산지유통 기반확충
	무엇목육실화장실개선				기계화정작로확포장	농산물유통시설지원
	오지교통지원사업				방조제개보수	농기계구입지원
	농어촌다목적장정 조성				밭기반경비	농업종합자금
	생활환경 개선	자연환경보전	도농교류확대	지역종합개발	생산기반/경비	소득기반/지원

자료: 조원망(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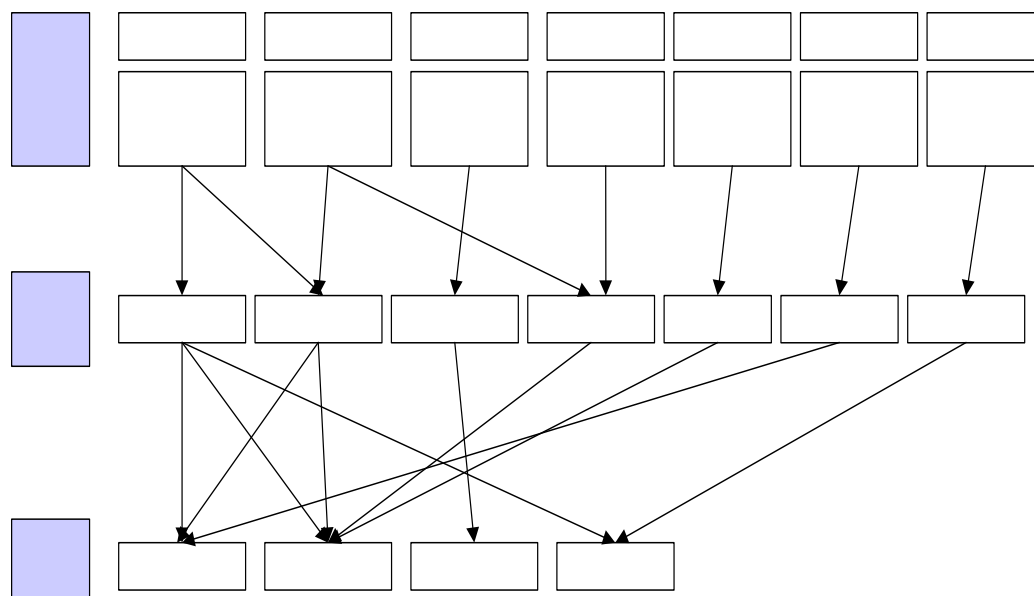
<표 2> 군특회계 농촌 지역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부처	근거법	계획수립	사업대상 범위	주 사업 내용	비고
점점지역지원	행자부	점점지역지원법(2000)	□	-15개 점점 시·군·98개 읍·면·동	정주기반 확충	
도서종합개발	※	도서개발촉진법(1986)	△ (사업용역 계획)	-53개 도서면 (410개 도서)	정주기반 확충	-(선)대상지 지정 -면당 5억원
오지종합개발	※	오지개발촉진법(1988)	△ (사업용역 계획)	-309개 오지면	정주기반 확충	-(선)대상지 지정 -마을별 소액 분산 투자
소도읍육성	※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2001)	◎	-194개 읍(면)	-정주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	제한적 공모방식
농촌마을종합 개발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하위질특법(2004)	◎	-정주권면의 마을권역(3-5개 행정리)	-정주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	공모방식
정주기반확충	※	농어촌정비법	□	-75개 정주권면	정주기반 확충	-마을별 소액 분산 투자
전원마을조성	※	농어촌정비법	△ (시설계획)	-정주권면 중심 마을(면소재지)	택지조성 및 정주기반 확충	신마을조성 및 기존마을 재정비형
농촌농촌체험 마을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	-마을	-도농교류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공모방식
산촌종합개발	산림청	산림기본법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관한법률	△ (시설계획)	-193개 산촌마을	정주기반 확충	-(선)대상지 지정 -사전설계비 포함
어촌정비관광 마을조성	해수부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발전기 본법	□	-연안 시·군 60 개의 1개 마을	도농교류사업	-제한적 공모방식 -어촌계 지원 및 자부담 5%
어촌종합개발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180개 권역 (120개 어촌계)	정주기반 확충 및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농촌진흥대마 마을	농진청	농업농촌기본법 농촌진흥법	□	-(157개) 마을	-도농교류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공모방식 -추진 과정 독특성 (생활지도사)
개발촉진지구 지원	건설부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 성에관한법률(1994)	□	-72개 시·군 (2-3개 면에 전 치는 벨트 중심)	정주기반 확충 (도로건설 위주)	-시·군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미개육치 지조 및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지연

자료: 송미령·박주영(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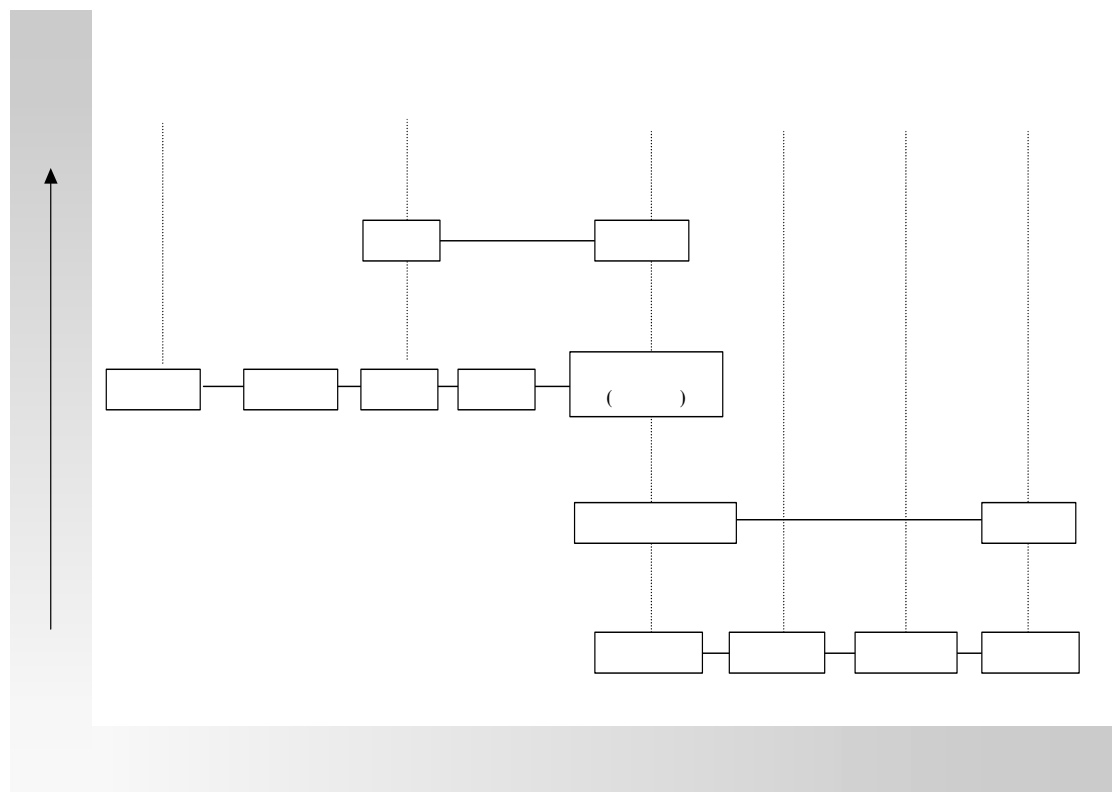
- 이와 같은 기존의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가 있었음. 절대적 낙후의 시대에는 하드웨어적 정비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만큼 농촌개발사업이 농촌의 낙후한 물리적 기반 구축을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기반을 닦는 일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여 왔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 평가임

- 그밖에 몇 가지 부정적 평가를 종합해보면 첫째, 사업간 중복성이 존재한다는 점임.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격상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가령,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사업의 추진 체계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행자부의 역할 분담을 위한 편의에 의하여 정주권면과 오지면을 분할하고 있을 뿐임
- 둘째, 현장에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 추진 계통이 다기화되어 있어 시·군 단위에서 종합화·체계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그림 1]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중앙·지방간 추진 체계 예시

- 셋째, 농촌 정주체계 및 부처 간 기능과 무관한 공간(정책대상지역) 분할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국토 속의 농촌의 위상과 역할 및 농촌의 정주체계, 생활권, 경제권 등을 고려치 않고 편의적으로 공간을 구분하거나, 큰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면·정주권면을 구분하거나, 혹은 농촌·산촌·어촌 구분이 혼재되어 있음. 이는 부처별 미션과 기능에도 부응하지 않는 업무를 추진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 공간범위에 따른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분포

- 넷째, 사업 내용의 시의성 및 차별성이 미약함. 사업 목적과 내용 측면에서 급변하는 시대적 수요와 지방의 현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사업이 많음. 이미 10여 년 전의 상황에 맞추어 디자인되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름
- 이와 더불어 농촌의 지역개발사업이 지역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도 짚어볼 수 있을 것임. 우선, 기존의 농촌개발사업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시·군 전체 나아가 농촌 전체의 혁신을 모색하는 등과 같이 지역이 자율적, 탄력적으로 체질에 맞는 통합적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임.
- 즉, 주관하는 부처의 법률이나 지침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의 자율성이나 사업의 탄력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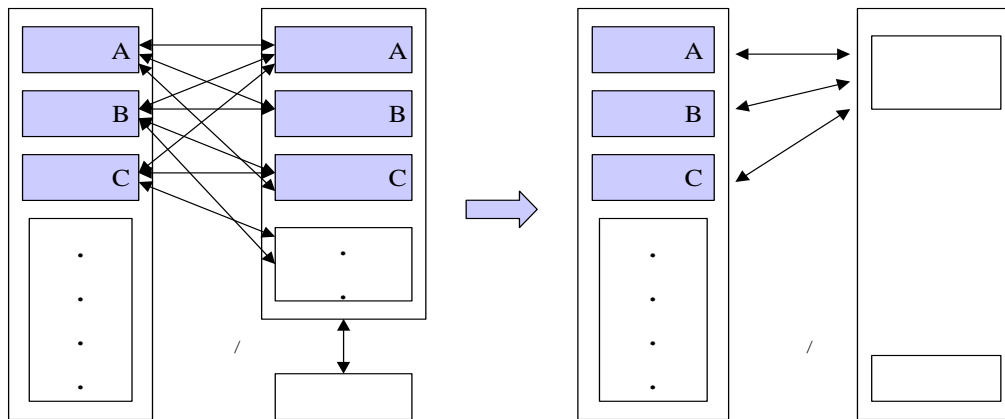
- 둘째, 농촌의 토지, 경관, 어메니티 등 ‘보전’에 초점을 둔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농촌에 부족한 SOC를 공급하는 데 사업의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농촌에 있어 지역 자원의 가치를 인식, 발굴하고 가꾸는 토대로서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음
- 셋째, 농촌의 인적자원 특히 주체 형성, 지역의 다양한 자원 동원을 위한 시도로서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농촌개발사업은 거의 없었음. 이는 사업 내용과도 관련이 깊은 바, 하드웨어 물량을 중심으로 한 성과를 강조하기만 하였지 사업 과정이나 절차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배려하지는 못하였던 탓임. 그러다보니, 지역의 역량, 주체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기회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음

## 2. 참여정부의 농촌개발정책

- 참여정부 들어와 지방화와 분권화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농촌 개발정책에도 여러 변화가 나타났음. 우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으로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권한의 지방이양 및 책임성이 강조되었음.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지역개발사업 중 일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본격 재편되기도 하였음<sup>1)</sup>
- 둘째,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새로운 예산운용 시스템이 형성됨으로써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지자체에 지원하던 농촌개발사업의 대 다수가 균특회계사업으로 이전되었음. 알려진 바와 같이 균특회계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주어진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지방이양대상 사업은 지방사무성격(지역특화사업 등), 반복적 집행성격(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지방재원 보전성격, 소액보조사업성격(소규모 문화관광축제, 친환경화장실 등)의 사업이다.





[그림 3] 군특회계사업의 예산운용 체계 변화

- 셋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부처별로 시행되는 분절적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이를 따라 시·군 단위의 지역개발 및 복지·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협조 및 조정 체제를 제도화하고자 하였음
- 넷째, 낙후지역의 혁신 유도를 위해 일방적인 사업성 자원 확대보다는 분산되거나 중복된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로 투자 성과의 극대화를 모색코자 신활력사업<sup>2)</sup>을 신설하였음. 무엇보다 농촌 지

2) ○ 지역 선정

- 지표: 인구(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산업경제(소득세할주민세), 재정(재정력지수)
- 범위: 전국 234개 지자체 중 하위 30%로 70개 시·군
- 지원 규모
  - 매년 2,000억 원의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 지원 방안
  - 3년간 일정액 지원, 최대 3번까지만 선정 및 지원

역개발에서 지역의 자율성, 소프트한 분야에의 강조 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임

- 그러나 여러 제도나 사업의 적용 과정을 들여다보면 근본적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농촌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도 없지 않음. 우선, 급격한 지방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화를 받아 들일만큼 지방의 수용태세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함
- 또한, 군특회계사업 운용의 경우, 예산총액한도 내에서 지방이 사업을 선택하는 체계 하에서는 예산 규모가 작다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혹은 공무원 입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생색이 나지 않는 사업은 인기 없는 사업으로 전락될 것이라 짐작됨. 문제는 대부분의 농촌개발사업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농촌개발사업 예산 축소 가능성이 없지 않음
- 셋째, 「삶의질향상특별법」의 경우 역시,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고, 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행재정적 구속력을 보장할 수 없어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한편 신활력사업은 기존 낙후지역 사업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삶의질향상특별법」 등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사업을 탄생시켜 농촌개발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방해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음. 결정적으로 그 자체의 추진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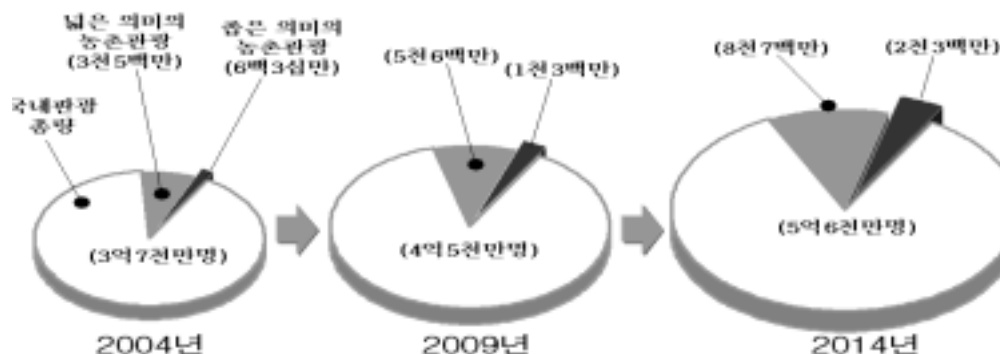
- 
-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후 중장기 지역발전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내생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집행
  -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 조기 졸업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

- 넷째, 낙후지역의 자립적 지방발전을 위해 도입된 신활력사업의 경우, 지방에서는 아직도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의 영역구분과 예산사용에 대해 혼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집행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의 혼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IV. 향후의 농촌정책 여건 전망

### 1. 도시민의 농촌 지향 수요 증대

- 농촌이 지니는 어메니티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도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그리고 농촌 공간이 제공하는 각종 편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장 수요도 높아가고 있음
- 이러한 도시민의 전원지향 수요는 체재형 수요와 정주형 수요로 구분할 수 있음. 체재형 수요란 소위 '5도2촌'형태로 사는 곳은 도시이지만 주 1~2일 정도는 농촌에 머무는 거주 형태임. 그리고 정주형 수요는 소위 '5촌2도'형태로 사는 곳이 농촌이고 주 1~2일 정도 도시에 머무는 거주 형태임
- 도시민의 농촌 체재형 수요의 증대는 농촌관광 수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5년도 전망에 따르면 전체 관광부문에서 좁은 의미의 마을 단위 농촌관광 수요 비중은 1.7%에서 4.2%(2014년)로,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 수요 비중은 9.4%에서 15.7%(2014년)로 그 몫이 점차 커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음(송미령·성주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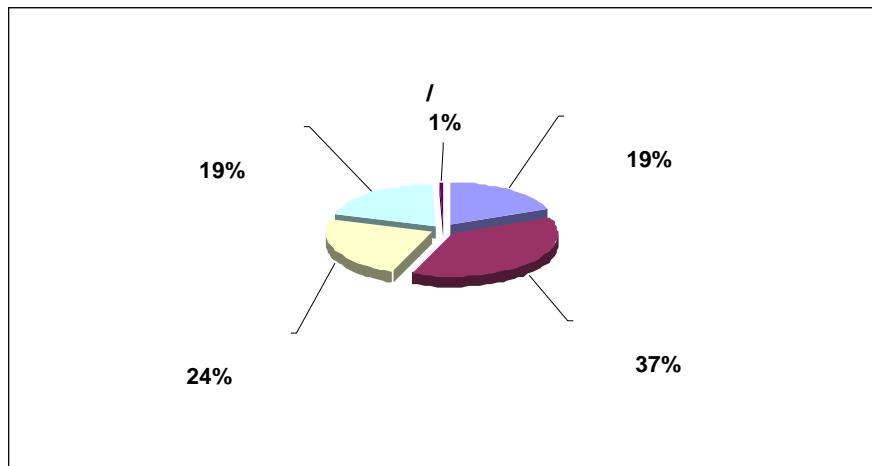


자료: 송미령·성주인(2005)

[그림 6] 농촌관광 수요 변화 전망

- 단지 체험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도시민들의 정주형 수요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도시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향후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이 전체의 56.1%로 우리나라 도시민 2명 중 1명은 농촌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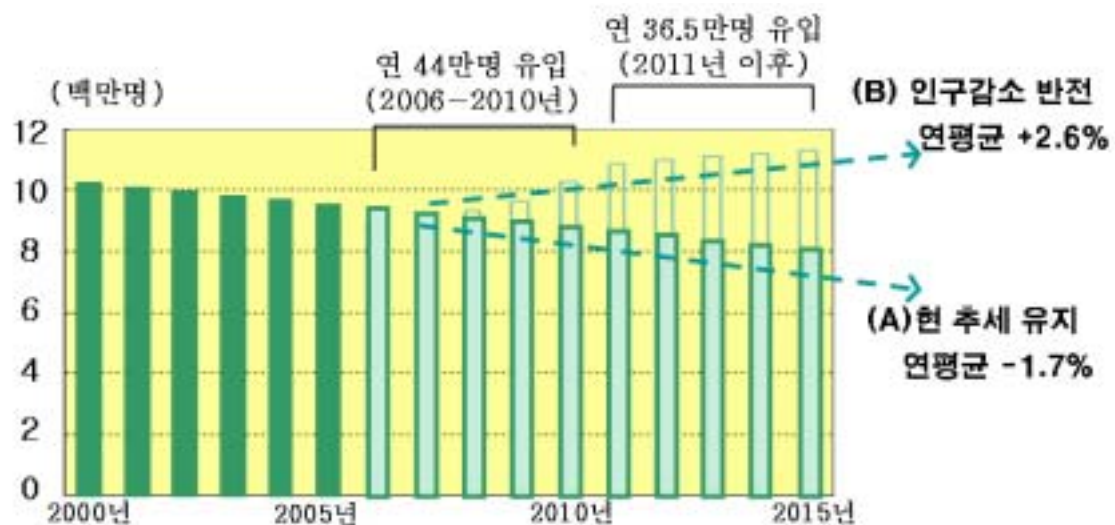


[그림 7]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 의향

- 도시민 조사 결과 농촌 이주 의향이 매우 높은데다 실제 이주 준비까지 하고 있는 비율이 약 17.4%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향후 10년 내에 이주하고자 준비하는 응답자 비율은 약 60%에 이릅니다
- 이러한 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도시민 중 이 비율이 모두 농촌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5년까지 약 403만 명의 도시민이 농촌으로 유입된다는 집계가 나옴
- 이러한 집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약 44만1천 명, 2011년 이후에는 매년 약 36만5천 명이 농촌에 이주해오는 것임
- 그러나 농촌 이주 의향을 강하게 보이며 실제 이주 준비까지 하고 있는 도시민이라 하더라도 농촌으로 주거지 이동을 결행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임. 농촌으로 이주해온 인구가 다시 도시로 유출되는 경우 등을 모두 감안한다면 실제 농촌 인

구가 이와 같은 추세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농촌 인구 증감의 궤적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한 (A)의 경우와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한 (B)의 경우 사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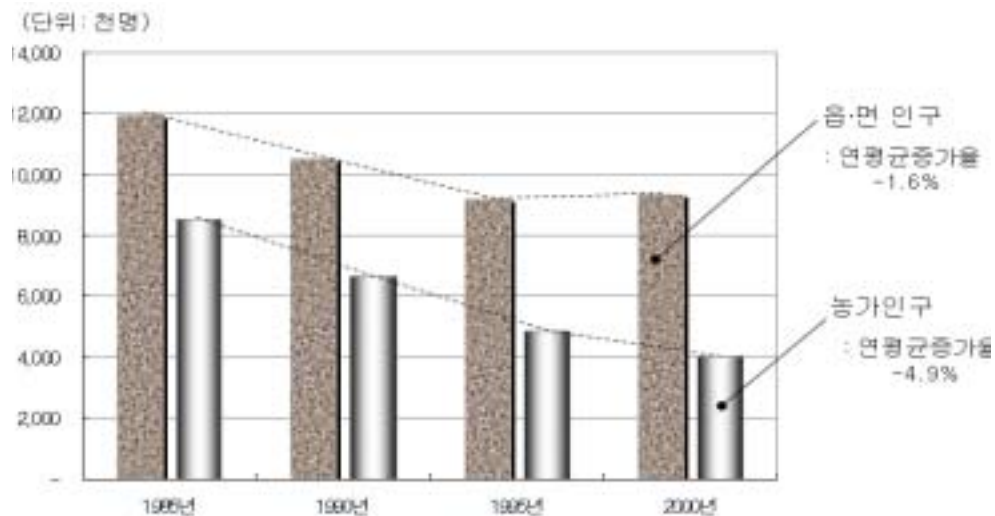
-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가 반전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적 노력과 투입을 하는가도 관건임



[그림 8] 장래 농촌인구 추이 전망

## 2. 향후 농촌정책의 여건

-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 종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농촌 인구의 유출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농업 부문 종사자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비율로 농촌 인구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함



[그림 9] 읍·면 인구 및 농가 인구의 변화 추이

- 이는 농촌지역에서 농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공간정책이자 지역정책으로서 농촌정책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 또한 지금까지는 도시민의 농촌 지향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의 경우 농촌관광 등과 같이 주로 단기적인 체재 위주의 농촌관광개발 정책이 주를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인 정주를 겨냥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 복합생활공간 조성이라는 이름 하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를 보여줌
  - 도시민 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주 지원기구 설치, 관련 생활기반 확충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농특위 주관으로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도시민의 농촌 정주 지원과 유도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06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은퇴자마을(Senior Town) 조성 콘테스트」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은 참여정부의 핵심기조인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기도 함. 장래 농촌지역은 국토 전체를 놓고 볼 때 전통적인 농업 생산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도농교류 생명산업권, 생태건강체험 주말휴양권, 대도시 연계 전원주거권 등의 역할을 갖게 될 것임(송미령·성주인, 2006)



[그림 10] 농촌의 미래상

- 농촌의 경관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시민의 농촌 체재 및 정주 유도를 위해 핵심적인 과제가 농촌답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임. 또한 농촌 경관관리는 개성 있는 지역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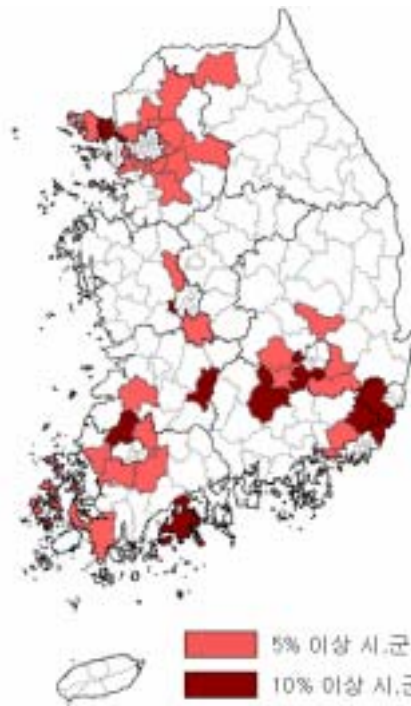
- 이미 2005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경관작물 식재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 이러한 경관보전직불제는 작물 재배로 한정되어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한계인데, 경관협약 도입이나 경관기본법 제정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농촌정책에서 경관 관리가 차지하는 몫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특히 앞으로는 지역 차원의 통일된 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조례, 경관계획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책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경관관리에 대응해야 할 것임

## V. 청양군 농촌 발전 전략

### 1. 청양군 농촌의 개발 여건

#### (1) 국토 공간 속에서 청양군의 위상 증대

- 청양군은 충청남도의 지리적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주·연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에 따라 그 배후 주거공간이자 휴양·여가 공간으로 전국적인 위상을 갖게 될 것임
- 인접한 예산·홍성 일대로 충남도청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거점도시를 연계하는 청양군의 지리적 강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대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많은 수의 도시민들이 이주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근교에 집중되고 있음. 2003년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서울 등 7대 대도시 전입인구 비율을 시·군별로 집계해보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은 대부분 경기도 및 대도시 인접 지역임(그림 9)
- 향후 행복도시 등 주변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배후 전원 주거권으로 청양군이 각광받게 될 것임



[그림 9] 대도시 전입자 비율이 높은 시·군 분포

## (2) 충남도 내 으뜸인 자연자원이 지닌 잠재력

- 산림, 계곡 등의 자연자원 면에서 충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 청양군은 큰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임야 면적이 청양군 전체 면적의 64.8%로서 평야지대가 많은 충남 평균(52.3%)보다 훨씬 높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충남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등 자연 여건 면에서 주변 지역보다 우월함(윤갑식, 2005)
- 이러한 자연조건은 때문지 않은 농촌관광지이자 전원주거지로서 청원군이 인근 지역에 비해 우위에 서도록 할 것임

## (3) 지역의 취약한 인구 기반은 해결해야 할 과제

- 자연조건이나 임지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그것을 지역발전 위한 동력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임. 특히 청양군은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 등의 문제에서는 다른 어느 농촌지역보다 심

각한 편이며 역량 있는 인재도 부족한 상황

- 전국 단위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2000년 기준)을 살펴보면 읍 지역이 9.6%, 면 지역이 18.1%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양군의 경우 그 비율이 23.5%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함. 특히 면 부만 놓고 볼 때 24.9%로 나타나 연령구조 면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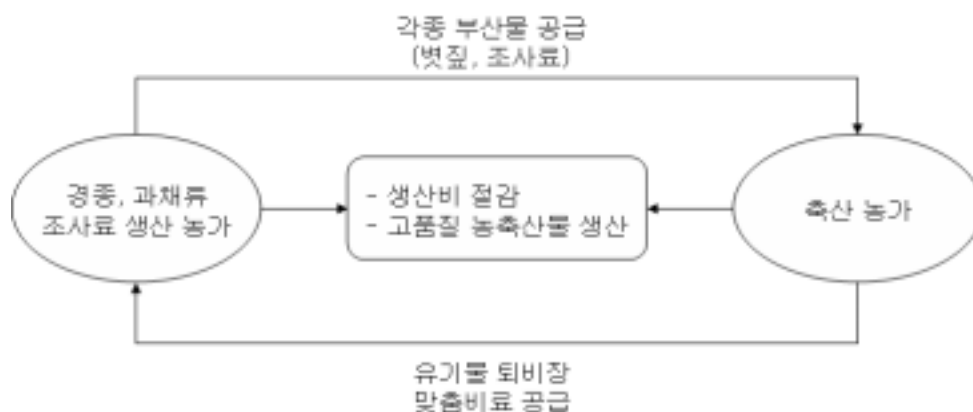
## 2. 청양군의 농촌개발 전략

### 1) 장기 비전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 각종 농촌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 단위에서 각종 농촌개발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임
- 그러나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지역의 장기 비전에 따라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에게 나름의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활동 영역을 찾는 등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들은 그러한 통합적인 추진체계에 바탕을 두어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임. 개성 있는 지역 연출을 위한 정관 정비 등이 그러한 지방의 통합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임
- 청양군도 이미 신활력사업,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큰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유치하여 이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지역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음
-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서천군의 경우 '어메니티 서천'을 지역의 대표 비전으로 내걸고 군의 주요 시책들을 이러한 개념 하에 진행토록 하고 있음. 전북 장수군의 경우도 농업 지역의 특성을 살

러 지역순환농업의 개념에 입각하여 각종 군의 농촌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장수군의 경우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및 군 자체적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농촌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농업인, 지역단체 구성원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단을 두어 일관된 군정 추진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장수한우 신활력사업, 장수 사과 클러스터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 FTA과수지원사업 등에 대해 이러한 농촌발전기획단에서 통합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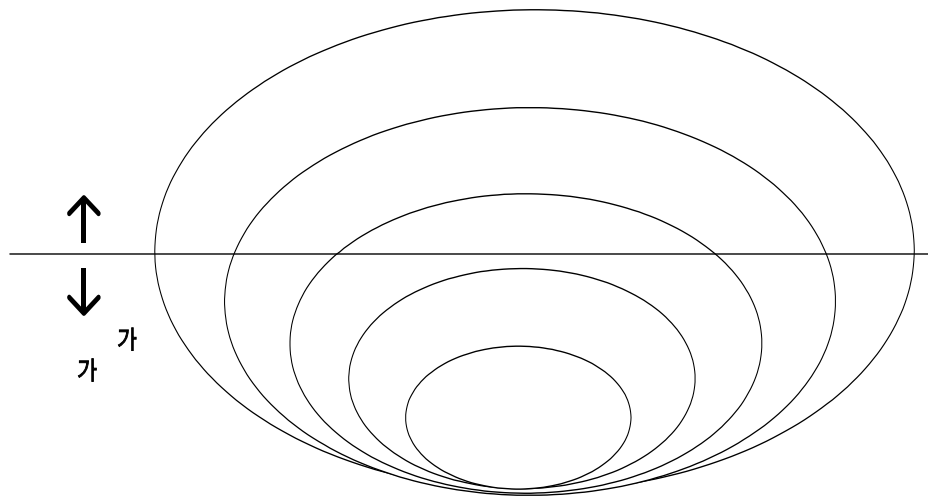


[그림 12] 장수군의 지역순환농업 개념

## 2) 지역 가꾸기의 원동력은 주민 참여

- 개성 있는 지역 가꾸기를 위해서는 지역의 통합적인 역할과 함께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특히 조화롭고 통일된 경관 관리 등의 과제는 몇몇 사람의 주도로 되는 일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담당이 필요
- 최근 일본의 경관법 제정 등도 살고 싶은 지역 가꾸기를 위해 오랜 기간 주민운동과 마을 만들기를 거친 경험이 바탕이 됨
- 포도 재배와 가공, 와인 직판, 농촌관광 등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사례로서 유명한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역의 와인루트의 경

우에도 이러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집합적인 활동이 중요함을 알려줌.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관의 조성과 문화유산 관리, 와인정보센터 조성 등의 활동은 개별 행위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



[그림 13] 이탈리아 와인루트에서 관광객 체험의 구성요소

### 3) 유일무이한 지역 고유의 가치가 장소판촉의 바탕

- 잠깐의 유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농촌개발은 긴 시야로 보아서는 성공할 수 없음. 특히 농촌을 도시민 등 외부 수요자에 판촉하기 위한 사업들은 지역의 고유 문화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도 유사한 복제 문화가 농촌개발의 결과 양산된다면 이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방문객을 끄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마다 각종 촬영장이나 세트장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나, 그것이 장기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전국 각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지역 자원의 외부 판촉을 통한 농촌개발에서는 결국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도시민과 방문객의 시장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임. 따라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한 관광지 조성은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됨

-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역에서 갖추는 것임. 그것이 바로 지역혁신의 과제라 할 수 있음

#### 4) 외부 수요를 겨냥한 개발만이 전부는 아님

- 최근의 농촌정책에서 농촌관광이나 복합생활공간 조성 등과 같이 지역 외부의 수요에 대응한 사업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촌정책의 기본은 역시 지역 주민이 살아가기에 좋은 터전을 만드는 것임
- 외부의 방문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관 가꾸기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그 결과로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따라오게 됨
- 일본 나가노현 오부세정에서는 지역의 작은 기업, 농협, 주민이 함께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크고작은 노력들을 하였음. 자신들의 특산물인 밤을 소재로 거리를 꾸미고, 지역전통을 잊지 않기 위한 건물과 장소 보존 활동을 하고, 생활공간인 정원 등을 가꾸는 것이었음. 그 결과 이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많아져 지역 전체가 조용한 노천박물관처럼 부상하였음(송미령, 2005)



[그림 14] 일본 오부세정의 개방정원 사례

## VI. 결론을 대신하여

- 농촌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 내용 및 추진 체계의 정비 등의 과제가 요청됨.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에서 농촌 개발정책이 진행되도록 각종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지역 외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때로는 고장을 위해 일할 만한 일꾼들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함
- 지역발전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촌 변화상에 대한 통찰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 농업 부문의 비중 감소는 분명히 농촌에서 크나큰 도전이 되지만 그와 병행하여 농촌이 갖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한 관심이 실제 어느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라 농촌이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인지 등을 전망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한 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그러한 변화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전략을 적절히 취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선명하게 명암이 갈릴 것이라는 점임. 그리고 이러한 미래 진단은 전통적인 농촌정책의 틀에만 머무르지 않는 혁신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어야 함



## 참 고 문 헌

- 김정연, 2004, “농어촌 지역개발정책 개선방안”, 농특위 제2분과위원회 발표자료.
- 송미령 등, 2004, 『신국토 구상과 농산촌의 혁신체계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2004, “신활력지역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 송미령, 2005, “농촌의 새로운 비전과 지역정책의 방향 정립”, 새국토연구협의회 2005 제3차 포럼 자료집.
- 송미령·김정연, 2004,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재편과 쟁점”,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송미령·박주영, 2004,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 2005, “농촌관광의 현실과 비전”, 『농업전망 20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 2006,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와 농촌의 미래상”, 『농업전망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갑식, 2005, “청양군의 지역발전 비전과 과제”, 새국토 연구협의회 2005 제3차 포럼 자료집.
- 조원량, 2004, “농촌지역개발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강원농수산포럼 제36차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지역경영 심포지엄」 자료집.
- Morgan, Kevin and (eds), 2002, Regional Innovation Strategies: Less favored Region, London: Routledges.
- Moseley, Malcolm J., 2003, Rural Development: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SAGE Pub.



제2주 제

## 청양군 농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

조 상 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 청양군 농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 농산업의 추이변화와 향후 전망 -

조 상 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 목 차

- I 농산업관련 인식의 변화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III 청양군 농산업의 발전방향 및 컨셉
- IV 지역농산업의 특성화 방향 제시

# 1. 농산업관련 인식의 변화

## 1. 대외환경 변화



# 1. 농산업관련 인식의 변화

## 2. 농산업패러다임 변화

### ■ 농산업 관련정책의 개념 변화

농업	→	농업, 식품, 농촌
전체농가 공평지원	→	농가유형별 정책 차별화
생산기반 등 SOC	→	소득, 복지, 지역개발
가격지지	→	소득보전
생산중심	→	소비자 안전, 품질 중심
농업생산공간	→	정주, 생산, 휴양공간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1. 분석의 기본컨셉

주  
요  
컨  
셉

1. 지역농산업의 지산지소적 발전방안
2. 지역농산업과 전국의 경향 차이 분석
3. 지역농업정책의 방향 모색

### 2. 분석의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1. 지역소득작목 중심 품목별 현황 인식
2. 지속적 농업생산을 위한 지역농산업 구조 개편
3. 지역농산물의 시장확대 및 고급화 방향 모색
4. 읍면별 중심적 농산물 분포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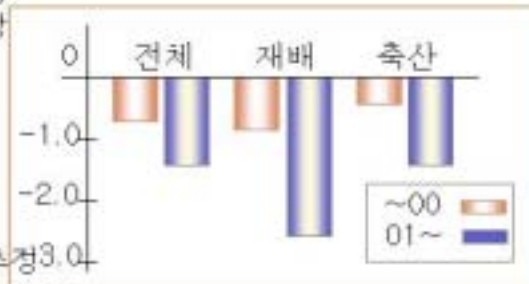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1) 농가경제

① 농업부분 지속적 마이너스 성장(2000년 이후 연평균 -1.9% 감소)

- 재배부문 평균 -2.7% 성장
- 축산부문 평균 -1.6% 성장



② 2006~2015년 농업생산력추경3.0

- 재배부문 -1.4% 성장
- 원예부문 1.2% 성장
- 축산부문 -2.1% 성장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2) 품목별 경향분석(전국)

##### 가) 양념채소류

생  
추  
산  
세

- 고추 및 마늘 : 96년 이후 감소
- 쪽파 및 대파 : 2000년 이후 점증추세

소  
예  
비  
측

- 고추 및 마늘 : 1인 소비량 감소(-0.6%)
- 파(양·쪽·대파) : 사회수요증가 ( 0.4%)



생  
산  
지

- 95~05 : 연평균 -0.8%
- 06~15 : 연평균 -1.3%

소  
비  
지

- 06~15 : 연평균 -1.3%
- 06~15 : 연평균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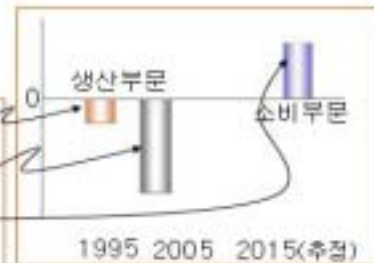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2) 품목별 경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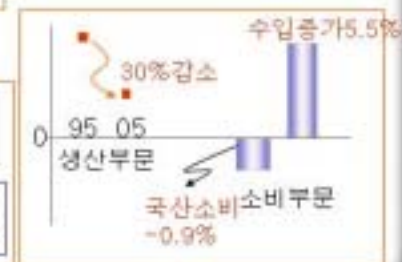
##### 나) 과채류

생 후 산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배 및 성숙면적 : 연평균 -1.2% 감소</li> <li>생산 및 출하가격 : 전체평균 7%대 하락</li> </ul>
소 예 비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마토 중심으로 매년 3%대 성장세</li> <li>딸기, 오이, 호박, 수박 등 안정적 성장세</li> </ul>



##### 다) 엽근채류

생 후 산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5년 대비 재배면적 30% 이상 감소</li> <li>90년 이후 연평균 -0.4% 지속적 감소</li> </ul>
소 예 비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산 증가 의한 국산소비 감소(-0.9%)</li> <li>전체소비량 중 수입산 비중 증가(5.5%)</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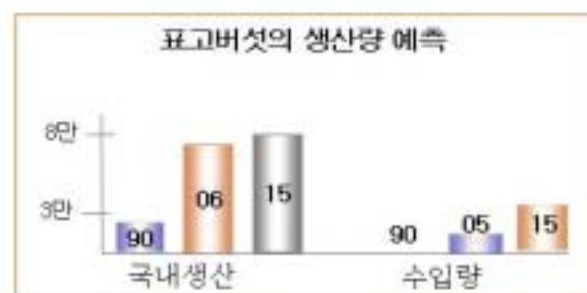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2) 품목별 경향분석

##### 라) 임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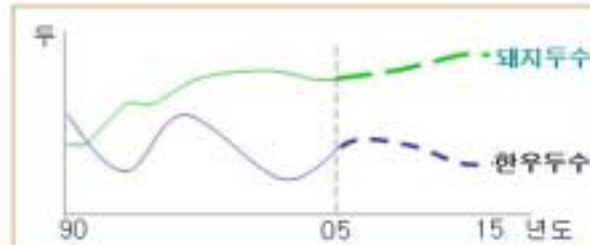
생 후 산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밤 생산은 7만톤 대의 약보합</li> <li>표고는 생산증대, 수입산 경쟁 본격화</li> </ul>
소 예 비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년-04년 대비 18.5% 순소비 감소</li> <li>표고 소비증가폭 제고(평균 17.2%↑)</li> </ul>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2) 품목별 경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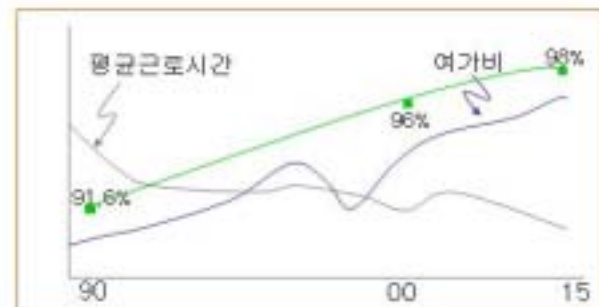
#### 마) 축산물

생 축 산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 대비 2004년 실적 57% 증가</li> <li>• 농업생산액 중 축산부문 최고(30%)</li> <li>• 돼지 34%, 한육우 27% 점유</li> </ul>
소 매 비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년기점 생산비보다 산지가격 높게 형성</li> <li>• 07년이후 수입산 영향 가격 큰 폭 하락</li> <li>• 08~15년 한우값은 370만원대 보합세</li> </ul>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2) 품목별 경향분석



#### 바) 농촌관광

현 후 재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단축 → 여가 증가(5鄣2村)</li> <li>• 여가비 증가(연평균 도시 5%, 농촌 0.8% 증가)</li> <li>• 웰빙트렌드의 일반화에 따른 여가비용 급증</li> </ul>
미 예 래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 증대(→15년 연평균 1.7% 증)</li> <li>• 마을단위 농촌관광 비중 급증(연평균 4.2% 증-2014)</li> <li>• 농촌관광 경향 전환(연고지방문→체재형주말관광형)</li> </ul>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3) 소비자 경향분석(전국)

현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보다 질에 대한 관심</li> <li>물가의 안정적 추세, 거시경제지표의 양호</li> <li>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li> </ul>
미래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장을 06년 5.0%, 07-15년 4.3% 성장가능</li> <li>농산식품산업 성장률 06년 7.2% 07-15년 10% 이상</li> <li>자연 및 기능성 건강식품 등 틈새시장 경쟁 일반화</li> </ul>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가) 농가비율 및 인구

- 노령화의 급진전
- 경제활동인구 급감



청양군 인구 및 세대수의 연평균 증감율

	80-03	80-89	90-03
세대수	-0.21	-0.61	0.15
인구수	-2.75	-2.93	-2.38
남	-2.78	-3.10	-2.64
녀	-2.73	-2.76	-2.52
농가호수	-1.93		
농업인구	-4.86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 나) 연령대별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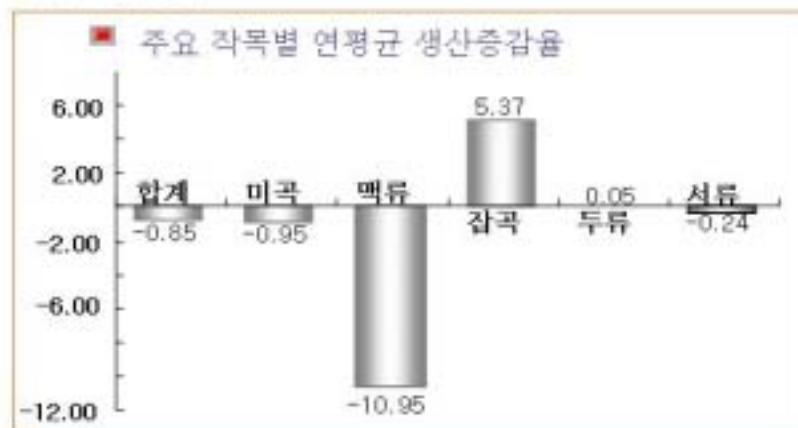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 다) 작목별 생산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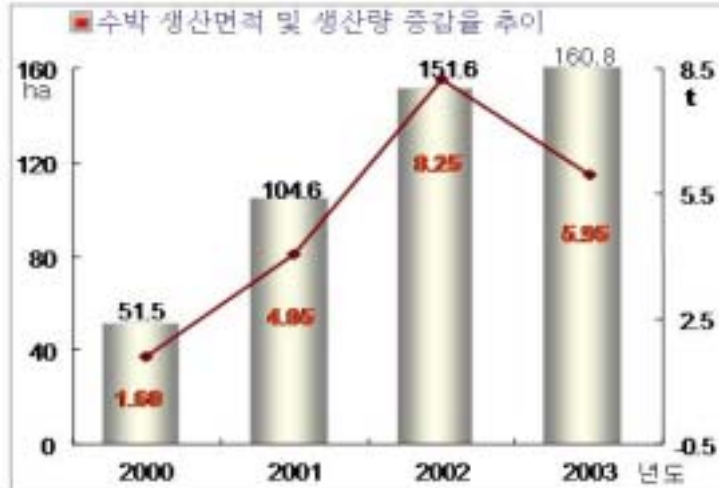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 라) 과채류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 라) 과채류

##### ■ 읍면별 수박생산량 변화 추이(2000~2003년)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라) 과채류 ■ 읍면별 토마토 생산량 변화 추이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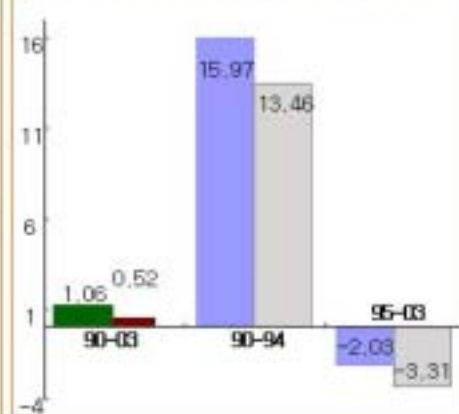
#### 4) 청양군 농업현황

##### 마) 특용작물

■ 읍면별 구기자 생산량 점유율



■ 구기자 생산면적 및 량 증감률 추이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 마) 특용작물

- 수급시장 협소

- 가격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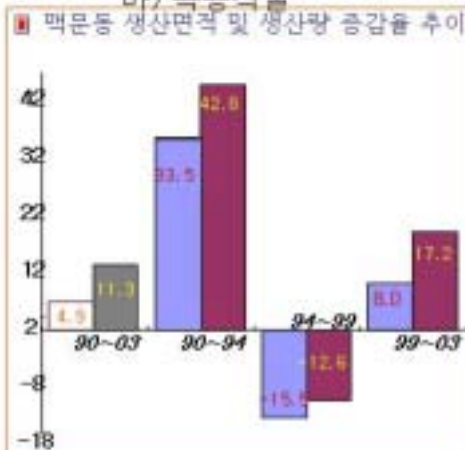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 마) 특용작물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 마) 특용작물

- 수급시장 협소
- 지역입지계수 최고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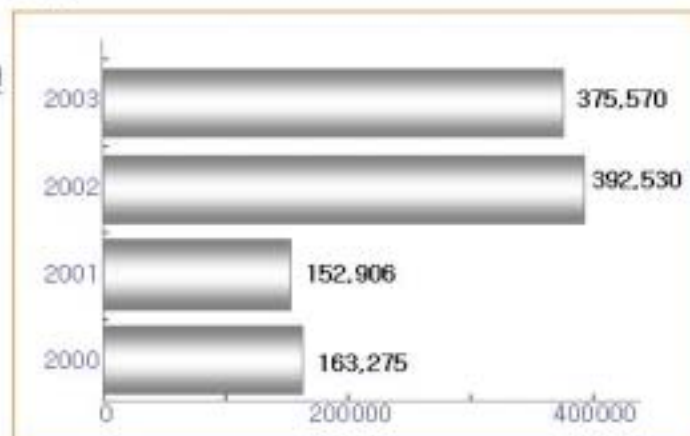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 바) 임산물

##### - 표고버섯



- 7,8,9월 출하에 맞춘 생산체계 및 기술로 하절기 점유율 전국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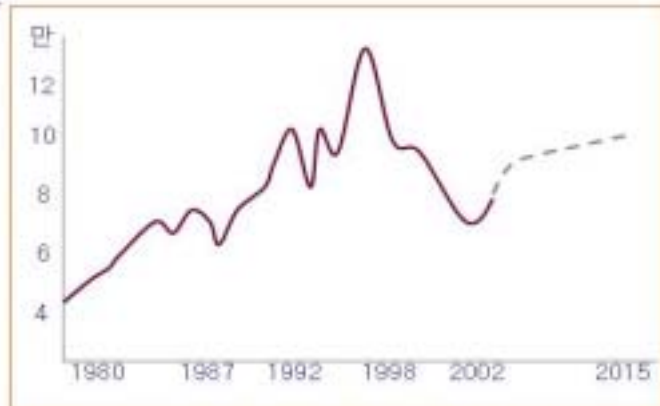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 바) 임산물 - 밤



- 신규조림의 확대에 따른 장기적 생산가능영역 확보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 4) 청양군 농업현황

##### 사) 축산물 - 한우(a)



- 10년간 총사육두수 48.7% 감소
- 가구당 사육두수 평균수준 이하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4) 청양군 농업현황  
사) 축산물 - 한우(b)

- 규모화를 위한 지원규모 모색



## II. 전국대비 청양농업의 현실 및 추이

### 4. 농산업 변화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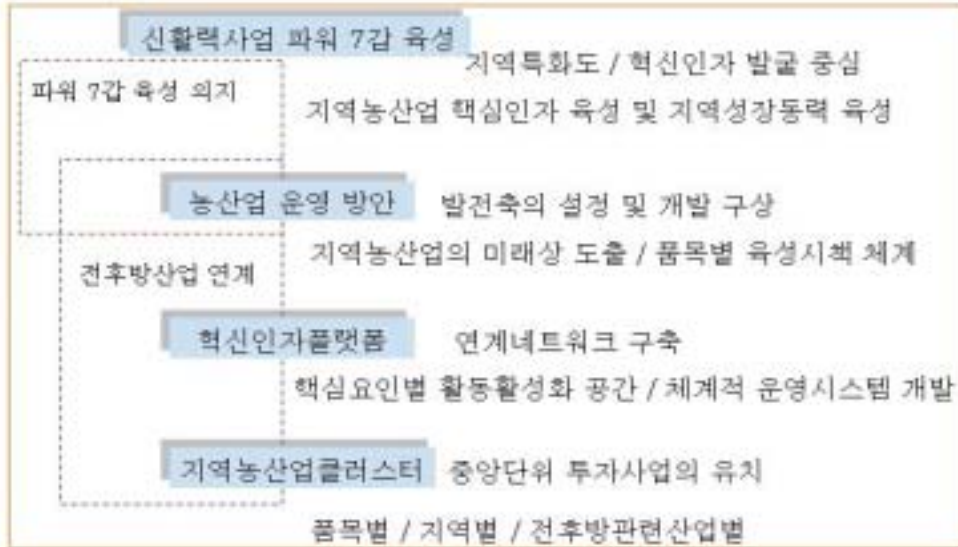
4) 청양군 농업현황  
사) 축산물 - 돼지(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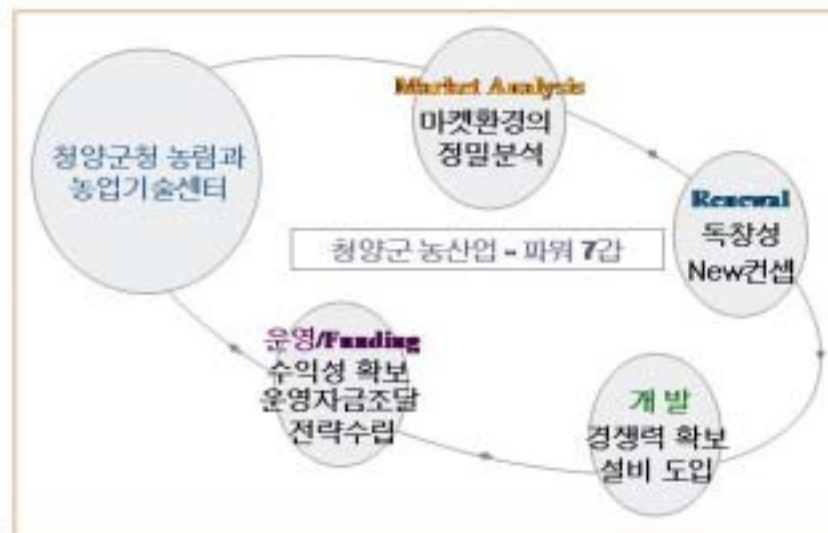
### Ⅲ. 청양군 농산업의 발전방향 및 컨셉

#### 1. 청양군 농산업 발전 방향의 개념



### Ⅲ. 청양군 농산업의 발전방향 및 컨셉

#### 2. 관련기관 역할 및 추진컨셉



## IV. 지역농산업의 특성화 방향 제시

### 1. 미래형 지역 농산업의 선택



## IV. 지역농산업의 특성화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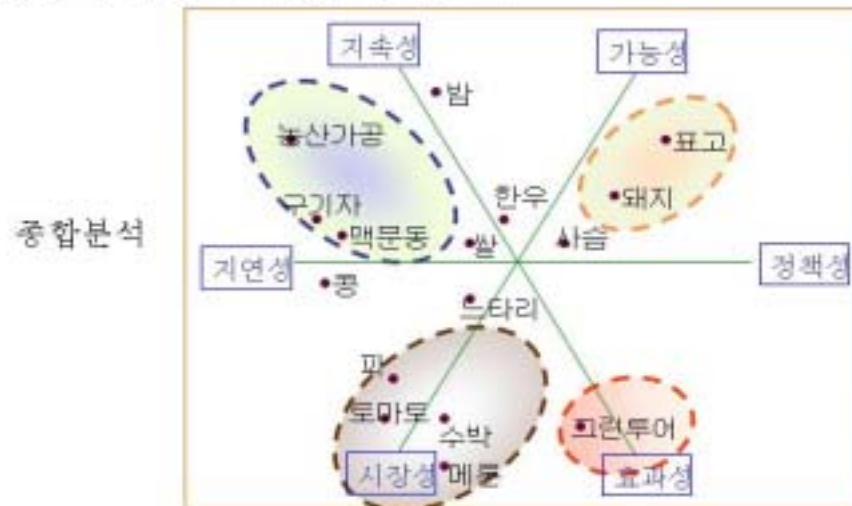
### 2. 읍면별 중점특화 품목별 분포





## IV. 지역농산업의 특성화 방향 제시

### 3. 청양군 농산업의 특성화 분석결과



감사합니다

## 제3주 제

# 농촌관광 마을가꾸기의 성공열쇠, ‘사람 가꾸기’

---

황 길 식

((주) 명소IMC 대표)

농촌관광 마을가꾸기의 성공열쇠,  
‘사람 가꾸기’



## 1. 머리말 : 농촌관광의 등장

- 지방자치제 실시 초기 관광개발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인양 다양한 규모와 방식으로 개발사업에 관심과 투자를 하였다. 그리고 사업내용 또한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관광시설을 조성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안도 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여기에다 부분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지역의 외형적인 발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있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관광활동의 경향은 친환경적, 체험적, 문화적, 지역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 역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지역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 농촌지역 개발계획의 핵심은 농촌주민의 삶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주민들부터 농촌을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 그리고 점차 농촌지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원이 농업생산물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내재적 가치를 이제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농촌관광은 농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개발의 새로운 유형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농촌관광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프랑스인들은 바캉스를 3,4주 정도 해외에서 보냈지만 소득이 충분치 못한 사람들은 저비용으로 가까운 농촌에서의 휴가를 즐기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이나 미국

에서도 나타나게 되며 그런 도시사람들이 그린투어리즘을 시작하게 되었다.

- 결국 농촌이 도시사람들을 위한게 아니라 도시사람들이 먼저 농촌을 원하였다. 일본의 경우 그린투어리즘이라는 단어를 농수성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일본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업을 거부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농업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자 농수성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촌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그 대책으로 일본의 농수성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을 채택하게 되고 각 지역의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경우도 과거 생산위주의 전통적인 농업과 이로 인한 오늘날 농촌지역사회의 붕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민과 농민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교류의 촉매역할로서 농촌관광이 등장하게 되었다.
- 농촌관광은 1차 산업인 농업과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농업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관광은 농촌 주민들이 농업행위를 수행하면서 농촌이 지니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동시에 도시 주민들과 사회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있다.
- 이는 환경, 건강, 문화적 풍요로움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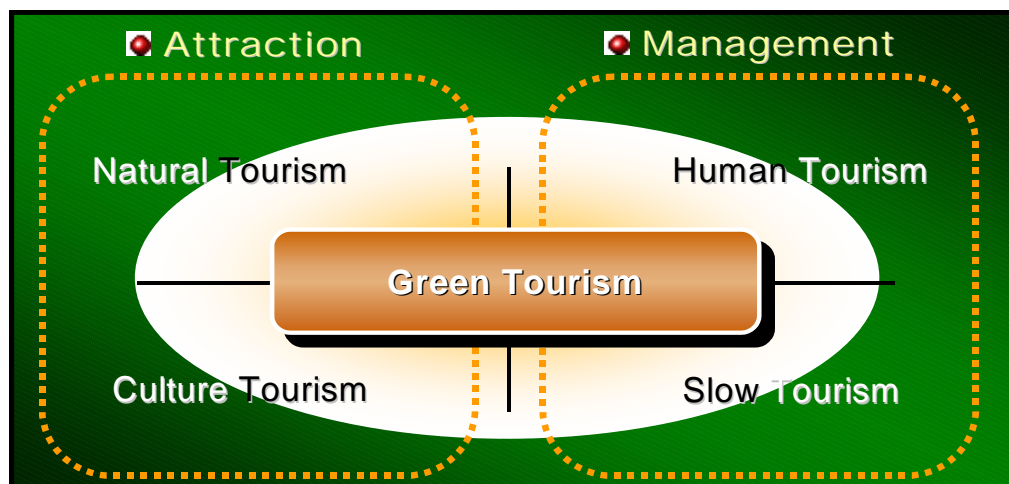
## II. 농촌관광의 개념과 추진동향

### 1. 농촌관광의 개념

- 과거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국내 농촌관광의 현황을 살펴

보면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기반조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농촌관광과 더불어 그린투어리즘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소비자(도시민)욕구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경우 이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농촌관광의 현황에 기초하여 사업의 도입기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연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추진전략수립에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 농촌관광(rural tourism)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그린·투어리즘에서 그린이란 녹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혹은 ‘자연을 사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 그러므로 그린투어리즘은 자연과의 여행을 의미하고 있으며 동시에 여행의 만족에 자연적인 경관 외에 지역주민의 인적서비스와 전통문화, 놀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그린투어리즘은 그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뿐 농촌관광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그린투어리즘을 구성하는 영역은 크게 attraction(자원)측면과 management(운영)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attraction(자원)측면은 natural tourism(자연환경, 농업생산물과 등)과 culture tourism(전통문화, 놀이 등)으로 영역이 양분할 수 있고, management(운영)측면은 human tourism(농심, 인적서비스)과 slow tourism(가치, 몰입 중심 프로그램운영)으로 양분된다.



(그림 1) 그린투어리즘의 영역

- 그린투어리즘이란 첫째,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농촌을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풍요로운 농촌을 무대로 하여 이색적인 체험을 통해 몰입을 경험하게 해 주는 관광사업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도시민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human service에 있다는 것이다.
- 둘째,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그 지역(마을)의 자원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평범한 시골경관과 일상생활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장소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린투어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에서 '자연환경, 농업생산물, 농촌의 전통문화와 놀이 그리고 농민의 정서와 같은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내재적 가치를 도시민과 농민간의 교류를 통해 상업화하는 일종의 대안관광인 셈이다.
- 그리고 농촌관광의 전략적 포인트는 농업과 농촌의 매력을 관광상품화 하여 도시와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포함한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이른바 농촌도 이제 상품으로 파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농촌관광을 통해 도시민들은 휴양과 체험을 위해 농촌을 방문하고 농촌주민들은 농촌을 방문한 도시민들을 상대로 농산물판매(1차산업), 가공사업(2차산업), 숙박, 음식물서비스(3차산업) 등 농업외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농촌관광을 하는 동안 도시민들은 심신의 피로를 치유하게 되며 인정과 친절, 바가지 없는 순박함이 주는 편안함과 아울러 아름다운 농촌경관,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들은 농촌을 찾게 만드는 주된 관광동기가 되고 있다.
- 농촌관광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리움과 신기함이다. 이제 농촌은 도시민들에게 그리움의 모태이며, 농업은 점차 신기한 행위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의 주요 대상은 「어린이와 가족」이며, 농촌체험과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관광에서는 지역의 독창적인 자원을 발굴해 도시민들을 빠져들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 2. 농촌관광 시장규모

- 국내관광 총량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9.4%에서 2011년 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관광의 향후 성장비율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표 1> 농촌관광 수요 예측

(단위 : 천 명, %)

구분	2001년	2005년	2008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국내관광 총량	329,929	507,436	536,876	605,968	6.3
농촌관광 총량	30,930	67,507	100,123	145,955	16.8
농촌관광 구성비	9.4	13.3	18.6	24.1	

주) 농촌관광 총량과 구성비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현행 30%수준에서 2005년에 50%, 2008년에 80%, 2011년에 100%시행되는 것으로 가정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 농업부문의 연간 부가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나 농촌관광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농촌관광 시장 예측

(단위 : 원, %)

구분	2001년	2005년	2008년	2011년
1인당 연간 농촌관광 최대지불 의사금액(원)	67,424	141,414	203,568	288,020
연간 농촌관광 시장 규모(십억 원)	2,005	4,337	6,491	9,463
농업 부문 연간 부가가치(십억 원)	22,651	22,296	21,947	21,774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농촌관광 비중(%)	8.9	19.6	29.6	43.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 3. 농촌관광의 추진동향

#### 1) 중앙정부의 농촌관광 추진동향

##### (1) 과거 시설위주의 양적성장 확대에 초점

- 정부의 농촌관광사업 추진은 1980년대부터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주도로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한 결과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부족, 지나친 시설중심 개발, 소프트웨어의 부족 및 농촌관광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농어촌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등 기타 농촌관광사업도 비슷한 이유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부처별 경쟁적 도입으로 인한 과열조짐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즈음하여 2001년부터 농촌관광 관련시책을 정부 내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농림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 테마마을사업, 행자부의 정보화마을사업,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등 7개 부처에서 15개 농촌관광 유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데, 현재의 농촌개발 정책은 과거의 시설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주민주도형 및 관광서비스 접목 등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 증진과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 (3)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및 추진조직 구성

- 농촌관광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의 정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가칭)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의 농촌관광과 관련한 법체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업농촌 신활력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2004년 4월에 도농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도농교류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농촌관광과 관련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2) 지자체의 농촌관광 추진동향

### (1) 경기도 - 슬로우푸드마을 운영

-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슬로우푸드마을 조성을 추진하여 조성 전보다 방문객은 약 12배, 소득액은 약 26배가 증가하였다. 슬로우푸드마을은 "1차산업(생산) + 2차산업(가공) + 3차산업(관광)"을 통합시킨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민역량강화교육, 전문컨설팅, 포털사이트([www. slowfoodvil.com](http://www.slowfoodvil.com)) 구축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2) 함양군 - "Green Therapy, 함양"을 모토로 그린투어 개발계획 수립

- 함양군내의 그린투어 자원의 발굴하고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함양군민박네트워크 구축 등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인재발견 프로그램, 리더쉽 육성 프로그램 등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린투어 추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으로 조직적인 운영체제도 구축하였다. 또한 함양군은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품질인증제 등의 새로운 농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홍보물·테마지도 제작, 안내표지판 설치, 자매결연 확대, 그린레터 발간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으로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3) 양평군 - 체험과 치유의 공간인 “Eco Doctor’s Town”조성

- 마을별로 유실수, 꽃길 조성사업, 지역 특산물 및 향토음식 개발 등을 추진하여 개성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테마를 생태건강마을로 설정하고 (기치료, 약초 재배 등 건강증진, 휴식 및 휴양 프로그램 개발)테마에 맞추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단위로 타겟을 설정하여 가족단위의 자연·농촌 체험, 생태관찰체험,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간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Ⅲ. 농촌관광 마을 가꾸기와 사람 가꾸기 전략

#### 1. 농촌관광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학습에서부터

- 마을 가꾸기 사업의 첫 단계는 마을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마을을 학습한다는 것은 우리 마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뜻이다.
- 예를 들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문제점이 많아 고쳤으면 하는 곳, 복원하고 싶은 곳 등 마을 환경을 살피는 것도 하나의 마을 가꾸기 학습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마을만이 가진 생활 풍습이나 놀이,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마을 가꾸기 학습의 예라 할 수 있다. 마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마을의 전반적인 가치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을 가꾸기 학습이다.
- 그렇다면 마을 가꾸기 학습이 왜 필요한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각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원들 서로가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마을 가꾸기 학습 활동이다.
- 따라서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을 소중히 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동안은 모두 함께 서로 배워나가는 시기이자 마을구성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기이다.
- 하지만 이 기간에는 구성원끼리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이나 이를 담당하는 자문가(컨설턴트)가 구성원의 관심분야, 문제의식, 마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런 주제로 학습(교육)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 2. 농촌관광 마을 가꾸기 학습의 유형

- 마을 가꾸기의 학습은 절대원칙이 없다. 이른바 유연성을 중요시한 현실적인 학습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 가꾸기 학습에 유효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나 강사를 불러 학습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가능하면 주민과 함께 생각하려 하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담당 공무원을 강사로 쓰는 것도 좋고,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전문가에게 강의를 부탁한다면 이후 마을 가꾸기에 있어 든든한 후원자(자문위원)가 되어 줄 수도 있다.

### 1) 성공사례의 견학

-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을 가꾸기의 실제 사례를 살펴 보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잘 이해된다.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상대 마을 협의회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견학을 실시할 때에는 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조정할 것, 마을 방문목적을 사전에 연락할 것, 또한 방문 당시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그 후의 마을 가꾸기의 경과를 보고하는 일 등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 2) 우리 마을에 대한 진단(조사)

-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가꾸기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마을에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 등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을을 진단을 해보면 마을 가꾸기에 대한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

- 마을에 대한 진단은 마을 가꾸기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현상을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 자원 현황과 매력, 배후시장은 어디인가, 그리고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특성에 대해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 이른바 마을 가꾸기를 위한 종합적인 여건분석을 하는 것이다.

### 3) 실제 체험에 의한 학습

-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도농 교류 이벤트를 통해 우리 마을 진단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조사하고 점검해 보는 것도 훌륭한 학습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마을에 도시민을 초청해 봄으로써 우리 마을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도시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 가꾸기 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 4) 연구 발표회(워크숍)

- 일본의 마을 가꾸기에서는 참가자들이 팀 작업을 통해서 마을 가꾸기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연구 발표회가 늘어나고 있다. 연구 발표회는 그 주제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다면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마을 가꾸기 협의회 내부에서 마을의 진단지도 만들거나 마을의 공공시설계획 만들기를 연구 발표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 참가자들이 생기 있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 발표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조언하고 자문해 줄 수 있는 담당자(컨설턴트)가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연구 발표회를 진행할 때에는 정리한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목적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3. 농촌관광마을의 주민교육 운영방안

- 주민들의 사업추진력 배양이라는 교육목표를 고려한 과정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주민교육 담당자가 직접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 1) 자연스러운 교육 분위기의 연출

- 참여자 중심의 주민교육에 있어 교육담당자는 학습 보조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독자적인 과제물을 작성하고 팀별로 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이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횡수별 교육내용 및 참가방법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진행 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으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참가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진행자 자신부터 유머를 섞어 본인 소개를 하고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딱딱해지기 쉬운 교육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좋은 방법이다.
- 교육 시 주민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다과를 준비하는 것도 교육에의 참여를 높이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요인이다.

<사진 3-1> 자연스러운 교육 분위기 연출



## 2)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의식 교육의 전개

- 다양한 교육방법 중 주민자치대학이나 시민강좌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강의법은 강사가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을 직접 언어로서 전달하는 형태로서 강사가 주도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교육방법을 말한다.
- 강의식 교육의 경우 자칫 하면 이론이나 지식의 단순한 전달에 그치게 되므로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거나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진 3-2> 강의식 교육의 전개



### 3) 결속력을 다져주는 팀별 활동의 활용

- 팀별 활동은 소집단의 구성을 통해 교육내용을 전개하는 것으로 강의법과 같은 주입식 지식전달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또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서로의 경험에 대한 정보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교육에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주민들 간의 결속력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팀 활동을 통해 마을 가꾸기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발굴되기도 한다.

<사진 3-3> 팀별 활동



### 4)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견학 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 가꾸기 성공사례를 우리 마을에도 응용 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도 강의와 어떻게 결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전답사 및 자료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편집하여 견학을 가기 전 ‘사전 설명’ 시간에 보여줌으로써 견학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도록 한다.
- 또한 견학 중에서는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 사무장 등 마을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견학과정은 주민들이 선진사례를 통해 직접 깨달음을 얻게 함으로써 교육에의 참여도를 높이는 입문역할을 하며, 과정이 절반쯤 진행된 상태에서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적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농 교류 등의 실습을 진행하는 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진 3-4> 견학프로그램의 운영



[특산품의 차별화 성공사례 견학]



[마을 만들기 해외 선진지 견학]

## 5) 주민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서비스의 실시

- 주민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들 개개인에 대한 애정과 서비스 정신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별 학습상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면담 및 전화상담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보다 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 또한 주민교육은 각 마을의 현장에서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상의 모임(커뮤니티)을 개설하여 교육담당자(또는 강사)와 교육을 받고 있는 주민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교육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게 하는 것도 주민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 IV. 맺음말 : 농촌관광은 휴먼서비스

- 충남 서천군 합전마을에 사는 정의국·최순애씨 부부는 1948년부터 선친이 조성한 아리랜드 농장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농사꾼부부. 그러나 이 부부의 농사법은 특이하다. 흔히 농사를 지어 도시에 내다 파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들이 농장을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묘한 비법이 있다.
- 실제로 이 부부가 운영하는 농장을 찾아가 보면 외형적으로는 어느 농장과 별로 차이가 없다. 단지 5,000평 규모에 동백나무숲을 조성해 놓은 것 외에는 다른 시골농장과 비슷하다. 그러면 왜 도시민들이 합전마을 아리랜드를 찾아오는 것일까? 비결은 바로 이 부부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 즉, 이 농장의 가장 큰 자원(attraction)은 바로 이 부부였고, 이 부부가 운영하는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도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매년 4월이면 아리랜드에서는 동백축제를 개최하여 도시민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 농장을 찾게 되면 마을 앞 갯벌에서 조개캐기, 게잡기, 바다낚시는 물론 방문객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농촌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
- 한 마디로 한국형 농촌관광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최애순씨는 도시민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 최애순씨가 만들어 주는 비빔밥은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도시민들을 단숨에 매료시킨다.
- 묶은 참기름과 방금 쥔 참기름의 맛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최애순씨는 묶은 참기름을 두고 방문 날짜에 맞춰 새로 쥔 참기름으로 비빔밥을 만든다. 아리랜드 비빔밥에는 정성이라는 양념이 추가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도시민들은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게 된다.



-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고 봄과 더불어 정의국·최애순씨 부부의 아리랜드 농장은 만개한 동백꽃과 더불어 이곳을 방문한 도시민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고 있다.
- 아리랜드 농장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결국, 한국형 농촌관광의 성공비결은 차별화된 휴먼서비스(human service)에 있다.

## 참 고 문 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 황길식(2004). 도농교류 활성화와 공공부문의 역할,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 농림부(2005). 농업농촌 신활력화를 위한 1·3차 산업의 융합연구
- 양평군(2002). Eco Doctor's Town 조성계획
- 함양군(2003). 함양군 그린투어 개발계획